

# 대명사의 영형태화

홍 순 성

1.1 언어적 문맥이나 담화(discourse)의 상황에서 띄풀이되어 쓰이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대명사와 같은 명시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위치에 무형의 조응어(zero anaphor)  $\phi$ 가 나타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그것은 노력의 절감과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표현에 있어서 극히 보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1) A: (a) 년 언제 돌아왔니?

B: (b)  $\phi$  이제  $\phi$

(1B)는 (1A)의 질문에 대한 무형의 조응이 일어난 것으로서  $\phi$ 의 위치에 「난(나는)」과 「돌아왔어」라고 하는 정보의 잉여성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생략은 언어 경제성과 사회성에 바탕을 두고 통사상이나 문맥상 복원가능성(recoverability)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

(2) a.\* 준호<sub>i</sub>는 준호<sub>i</sub>가 승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b. 준호<sub>i</sub>는 자기(자신)<sub>i</sub>이 승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c. 준호<sub>i</sub>는 그<sub>i</sub>/j가 승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d. 준호<sub>i</sub>는  $\phi$ <sub>i</sub> 승진할 것이라고 믿었다.<sup>1)</sup>

(2b~d)의 '(자기)자신, 그,  $\phi$ ' 등은 준호를 선행사(antecedent)로 하는 조응어(anaphor)로서 (2a)의 심층구조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보겠는데 (2a)가 경우에 따라서는 (2b~d)와 같이 여러 형태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2a)가 비문인 것은 이 경우 규칙으로서의 대명사화가 수의적이 아니고 의무적임을 말해주며 이때 (2b)처럼 이른바 재귀대명사로 대치되기도 하고 (2c)처럼 일반대명사로 대치되기도 한다. (2d)는 대명사화된 것이 다시 삭제된 경

---

1) (2d)의 경우 주문의 동사 믿었다의 주체가 준호가 아니고 단 사람일 경우 이 문장은 (2a)와는 뜻이 다른 문장이 된다.

우로서 이와 같이 대명사가  $\phi$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대명사의 영형태화라 한다.<sup>2)</sup>

- (3) a. \* 순이 $i$ 는 순이 $i$ 가 현모양처가 되기를 희망했다.
- b. 순이 $i$ 는 그녀  $i/j$ 가 현모양처가 되기를 희망했다.
- c. 순이 $i$ 는 (자기)자신 $i$ 이 현모양처가 되기를 희망했다.
- d. 순이 $i$ 는  $\phi$ i 현모양처가 되기를 희망했다.

(3a)와 같은 심층구조의 문장이 각각 (3b~d)로 표면구조화 되었다고 볼 때, (3b)보다는 (3c)가, 그리고 (3c)보다는 (3d)가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3b)에서 두번째의 명사인 그녀는 그 선행사 순이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으니까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고 (3c)의 경우도 (자기)자신이 들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3d)의 영형태화 된 문장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3a~3d)의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복합문 안에 동일한 NP가 둘 있을 경우 두번째 NP를 탈락시키는 동일명사구 삭제규칙을 적용함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면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a. \* 준호  $i$ 는 칼로 준호  $i$ 를 찔렀다.
- b. 준호  $i$ 는 칼로 (자기)자신  $i$ 을 찔렀다.
- c. \* 준호  $i$ 는 칼로  $\phi$ i 찔렀다.
- (5) a. \* 영호  $i$ 가 마당을 쓸고 난 후, 영호  $i$ 가 물을 떠 왔다.
- b. \* 영호  $i$ 가 마당을 쓸고 난 후, (자기)자신  $i$ 이 물을 떠 왔다.
- c. 영호  $i$ 가 마당을 쓸고 난 후,  $\phi$ i 물을 떠 왔다.

(4)는 단순문이고 (5)는 접속문이라는 점에서 다르긴 하나 (4c)와 (5c)를 대비해 볼 때 두번째 명사(구)를 탈락시킨 (4c)는 비문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경우이지만 (5c)는 정문이 되어 있다. (3~5)의 예문을 통해볼 때,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본고는 곧 영형태화가 일어나는 원칙이 어떠한지 또한 영형태화의 기능과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2)  $\phi$ 가 나타난 자리를 무형의 조응이 이루어졌다 하여 흔히들 무형조응어라고 일컫지만, 대명사가 탈락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대명사의 영형태화라고 함이 더욱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2.1. 담화의 장면을 화맥으로 할 때 이 장면에 들어있는 화자·청자·제3자가 문법범주인 1, 2, 3 인칭을 각각 이루며 이때 담화의 참여자인 화자나 청자가 화제로 쓰일 경우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sup>

(6) a. 내일 그 사람을 만날 예정입니다.

b. 나중에 떠날까 합니다.

d. 배가 고파 못참겠습니다.

(7) a. 편히 앉으세요.

b. 언제 떠날 작정이냐?

c. 내일 서울 가지겠습니까?

(6)에서는 화자(주어)가 생략되었고 (7)에서는 청자(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평서문인 경우는 주어인 화자의 생략이 자연스럽고 의문문과 명령문인 경우는 주어인 청자의 생략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영형태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즉 전술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구정부가 되므로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정보보다도 주체를 지적하거나 대조적으로 쓰일 때에는 생략이 안 된다.

(8) a. 간다.

b. 나 간다.

c. 내가 간다.

d. 나는 간다.

(9) A: (a) 너는 안 먹겠다고 했다면서?

(b) 난 먹을 거야.

B: (c) 내가 먹는다면 나도 먹겠어.

(8a)의 경우는 말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생략된 주어는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으며 3인칭일 수도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함께 알고 있는 두드러진 지시 내용이면 생략 곧 영형태화가 일어난다.

3) 조응표현은 동일명사구인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로 나눌 수 있고 이 선행요소는 문맥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행요소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을 때, 이를 통사적인 삭제에 의한 것으로 하여 기저구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해석규칙에 의해 해석된다는 두 견해가 있다. 전자로는 Grinder-Postal(1971), McCawley(1976)를 대표로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Jackendoff(1972), Wasow(1975) 등이며 이 두 견해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Hankamer-Seg(1976)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이론에 관해서는 논급하지 않고 마지막 절충안을 따르기로 한다.

4 嶺南語文學(第14輯)

(8a)에서는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화자와 청자가 같이 알고 있는 경우이지만 (8b)와 같이 나가 명시된 경우는 사정이 그와는 달라져서 청자에게 모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밖의 일일 때에 한 말이 된다. 또 (8c)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간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지적’할 때 쓰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8d)는 「(다른 사람은 안 가더라도, 혹은 가든 말든) 나만은 간다」의 뜻으로 대조적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며 (9)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너는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어 이런 경우 영형태화가 일어나면 정보의 전달이 불분명해진다. 그 점은 (10)도 마찬가지다.

(10) A: (a) 이것 네 만년필이니?

(b) 내것과 똑 같은데.

B: (c) 아냐, 네 만년필이야.

(10)에서 소유격 네를 빼어 버리면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며 (11)과 같이 담화상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 된다.

(11) A: (a) 이것  $\phi$  만년필이니?

(b) 내것과 똑 같은데.

B: (c) 아냐,  $\phi$  만년필이야.

(10)과 같이 소유자를 명시해야 할 경우에도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 (8~10)에서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날 수 없는 세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모두 통사나 의미상의 제약이 아니라 담화구조에서 오는 제약들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담화구조에서가 아닌 문법적, 통사적 제약으로 해서 영형태화가 일어난 경우를 찾아 보기로 하자.

(12) a. 어서 가져라.

b. 어서 가져.

(12a)와 같은 명령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생략되었고, (12b)와 같은 청유문에서는 1인칭 복수 주어(우리)가 생략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한다.

서술동사의 하위분류의 특성에 따라서 영형태화된 대명사의 지시체를 찾아낼 수 있다. 즉, **—고 싶다**로 끝나는 문장이나 **‘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반갑다’** 등의 심리적 형용사로 끝나는 구문에서는 평서문이면 1인칭, 의문문이면 2인칭 주어가 생략됨을 알 수 있다.

- (13) a. 이번 방학엔 꼭 가고 싶다.  
b. 이번 방학엔 꼭 가고 싶으냐?
- (14) a. 그가 보고 싶어요.  
b. 그가 보고 싶으냐?
- (15) a. 너무 기뻐요/슬프요/반가워요.  
b. 너무 기쁘냐?/슬프냐?/반가우냐?

(13a, 14a, 15a)의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가 생략되고 (13b, 14b, 15)의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생략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2. 이 상에서 대명사의 영형태화의 실현 여부를 알아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복합문이 아닌 단순문의 경우에 국한되었다. 그러면 이제 복합문에서의 영형태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삽입절이 있는 복합문의 경우로 (16~17)을 예로 들어 본다.

- (16) a. \*준호<sub>i</sub>는 준호<sub>i</sub>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b. 준호<sub>i</sub>는 그<sub>i</sub>/j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c. 준호<sub>i</sub>는 (자기)자신<sub>i</sub>이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d. 준호<sub>i</sub>는  $\phi$ i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 (17) a\* 그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b. 그는 (자기)자신<sub>i</sub>이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c. 그는  $\phi$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16a)와 (17a)는 심층구조로 볼 때는 완전한 문장이거나 표면구조로서는 비문이며 (16b)는 대명사화, (16c)는 재귀대명사화, (16d)는 내포문의 주어가 동일명사(주) 탈락규칙에 의하여 탈락된 경우이다. 이로써 한국어의 복합문은 두개의 동일명사(주)가 있을 때 두 번째 명사(주)는 대명사화, 재귀대명사화, 영형태화 중 어느 규칙이 적용되어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문에서는 이와 다르다.

- (18) a. 영호<sub>i</sub>는 칼로 (자기)자신<sub>i</sub>을 찔렀다.  
b.\* 영호<sub>i</sub>는 칼로 그<sub>i</sub>를 찔렀다.  
c.\* 영호<sub>i</sub>는 칼로  $\phi$ i 찔렀다.
- (19) a. 영호<sub>i</sub>는 (자기)자신<sub>i</sub>을 추천하였다.  
b.\* 영호<sub>i</sub>는 그<sub>i</sub>를 추천하였다.  
c.\* 영호<sub>i</sub>는  $\phi$ i 추천하였다.

6 嶺南語文學(第14輯)

복합문에서는 (16~17)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명사화, 재귀대명사화, 영형태화의 셋이 모두 가능하나 단순문에서는 (18~19)에서처럼 재귀대명사화만 가능하고 대명사화와 영형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사가 소유자를 나타낼 경우에는 재귀대명사화와 대명사화가 공히 일어나나 영형태화는 일어나지 아니한다.<sup>4)</sup>

2.3. 그러면 이제 대등절로 이록된 복합문과, 종속절·주절로 이록된 복합문을 들어 보기로 한다.

- (20) a. 나는 등산도 좋아하고  $\phi$  낚시도 좋아한다.  
       b. \* 나는 등산도 좋아하고 나는 낚시도 좋아한다.
- (21) a. 너는 의사가 되든지  $\phi$  교수가 되든지 하여라.  
       b. \* 너는 의사가 되든지 너는 교수가 되든지 하여라.  
       c. 나는 장학금을 타거나  $\phi$  장기융자금을 받거나 해야 된다.  
       d. \* 나는 장학금을 타거나 나는 장기 융자금을 받거나 해야 된다.
- (22) a.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으므로  $\phi$  합격이 되었다.  
       b. \*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으므로 내가 합격이 되었다.  
       c.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phi$  너와 결혼할 수 없다.  
       d. \*?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다.
- (23) a. 내가 만일 부산에 가면  $\phi$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 \* 내가 만일 부산에 가면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은 대등절로 이록된 접속문이고 (21)은 이접접속문이며 (22~23)은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된 접속문으로서 (22)는 인과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며 (23)은 이른바 조건접속문이다.

(20~23)에서 알 수 있는 현상은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난 각 문장의

4) 즉, 다음과 같은 경우 ③과 같이 영형태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②처럼 대명사화가 되는 경우는 있다.

- ① 영호<sub>i</sub>는 준호<sub>i</sub>를 (자기)자신<sub>i</sub>의 집에서 만났다.
- ② " " " 그  $i/j$ 의 " "
- ③ \* " " "  $\phi$  " "

(①~③)은 단순문이며 자기가 쓰이는 자리에 그도 쓰이고 있다. 즉 (18~19)는 NP<sub>b</sub>의 선행사로 생각되는 NP<sub>a</sub>가 단 하나 뿐인데 반하여 ①~③은 그것이 두개 (영호 & 준호)가 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명사에 관한 규칙으로 단순문에서 선행사로 생각되는 NP<sub>a</sub>가 단지 하나 뿐이면 NP<sub>b</sub>는 자기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a 또는 c는 정문이나 영형태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밖의 문장은 비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곧, 대등절로 구성된 복합문과 주절·종속절로 구성된 복합문에서는 반드시 대명사의 영형태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16~17)과 (20~23)의 차이점은, (16~17)이 내포문으로서 동일명사구중 두번째의 것이 대명사화 또는 재귀대명사화 그리고 영형태화의 세 규칙이 모두 적용됨에 반하여 (20~23)의 것은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서 앞의 세 규칙 가운데 영형태화만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내포문의 경우를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 (24) a. 준호 i는 자기 i가 순이와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 b. 준호 i는 그 i/j가 순이와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 c. 준호 i는  $\phi$ i/j 순이와 결혼하기를 희망했다.
- (25) a. 준호 i는 어제 자기 i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b. 준호 i는 어제 그 j/i의 동생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c. 준호 i는 어제  $\phi$ i/j 동생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26) a. 준호 i는 영호 j를 자기 i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
- b. 준호 i는 영호 j를 그 i/i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
- c. 준호 i는 영호 j를  $\phi$ i/j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

(24)는 명사절을 내포한 복합문이며 (25)는 완형보문의 경우이고 (26)은 관형절을 내포한 복합문이다. 앞의 (20~23)의 접속문이 영형태화만 이루어짐에 반하여 이들 (24~26)은 공히 대명사화와 재귀대명사화, 영형태화의 셋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이 특징이다.

유현경(1986)은 대용화현상을 놓고 내포문과 접속문을 비교해 본 결과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은 유사점이 적고, 오히려 내포문과 종속접속문이 통사적 특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종속접속문이 내포문의 일종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증거라고 했다.<sup>5)</sup> 이러한 유현경의 주장은 (24~26)의 내포문과 앞서의 (20~23)의 접속문과의 대비를 통해 볼 때 정확한 분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명사의 영형태화라는 점에서 볼 때 적어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은 그 통사적 특성을 같이하며 내포문과는 그 특성을 달리 한다고 하겠다.

2.4. 하나의 복합문 내에 동일한 명사(구)가 두 개 있을 때 두번째 명사

5) 유현경(1986, p.9).

(구)가 어떤 때에는 재귀대명사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탈락을 함으로써 어색함을 면하고 자연스러운 표면구조로 나타남을 보았다. 즉, 통사론적으로 동일한 환경이라 하더라도(동일명사가 둘 있는 복합문) 내포문에서는 탈락과 재귀대명사화가 다 가능하나 접속문에서는 탈락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나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 탈락하고 어떤 경우에 재귀화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위의 문장 종류만으로써 체계화할 수는 없다. 이들 문장종류 외에 어휘가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음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 (24) a. 준호 i는 (자기)자신 i이 똑똑하다고 믿는다(생각한다).  
 b. \* 준호 i는  $\phi_i$  똑똑하다고 믿는다(생각한다).  
 (25) a. ? 준호 i는 (자기)자신 i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희망한다).  
 b. 준호 i는  $\phi_i$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희망한다).

(24)와 (25)는 모두 내포문이지만 (24)에서는 두번째 명사(구)가 탈락함이 불가능하고 (25)에서는 오히려 탈락함이 재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주문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믿는다, 생각한다, 강조한다……’와 같은 동사는 내포문에서 두번째의 명사(구)가 재귀대명사화 규칙을 적용받는 동사이며 ‘원한다, 기대한다……’와 같은 동사는 동일명사(구) 삭제 규칙을 적용받는 동사인 것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동사로 (26)을 들 수 있고 후자에 해당되는 동사로 (27)을 들 수 있다.

- (26) 믿는다, 예언한다, 생각한다, 안다, 강조한다……  
 (27) 원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후회한다, 슬피한다……

2.5. 양동휘(1980)는 국어의 무형대용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주제성 제약과 적절성 제약의 설정이 필요함을 밝혔다.<sup>6)</sup> 주제성 제약은 Langacker(1969)의 우위성 제약을 기능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그 요인은 선행성, 근접성, 위계성, 주제성 등이 되며 적절성 제약은 화용론적 제약으로서 그 요인을 통사상 적절성, 의미상 적절성, 화용상 적절성, 시점 적절성 등이 된다고 하였다.

6) 양동휘(1980, pp.51~77).

- (28) a. 두목 **i**이 부하 **j**를 [ $\phi_j$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찼다.  
 b.\* 두목 **i**이 [ $\phi_j$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하 **j**를 발로 찼다.

(28a)는 부하가  $\phi$ 를 선행하여 조응관계가 성립되나 (28b)는 불가능하다.

- (29) a.? [ $\phi_i$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하 **i**를 두목 **j**이 발로 찼다.  
 b.\* [ $\phi_i$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목 **j**이 부하 **i**를 발로 찼다.

(29a, b)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hi$ 에 가까이 있는 명사일수록  $\phi$ 의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30) a. 준호 **i**는 [ $\phi_i$  회장에 당선된 것]을 좋아했다.  
 b.\*  $\phi_i$  [준호 **j**가 회장에 당선된 것]을 좋아했다.

(30a)에서는 준호가  $\phi$ 를 지휘(command)하고 있어서 정문이 되지만 (30b)에서는  $\phi$ 가 준호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비문이 된다.

- (31) 철수 **i**가 창수 **j**의 친구 **k**를 순희 **l**에게 [ $\phi$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개하였다.

(31)에서  $\phi$ 의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표시하면 「주격 > 목적격 / 여격 > 소유격 / 행위자격」의 순서가 된다.

양동회는 이상의 선행성, 근접성, 통어성, 위계성 등의 우위성 요인들이 주제성에 공헌하는 요인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우위성 제약만으로는 한국어 대명사의 영형태화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 (32) a. [ $\phi$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준호가 영호에게 말했다.  
 b. [ $\phi$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준호가 영호에게 자랑했다.  
 c. [ $\phi$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준호가 영호를 부러워했다.

(32a)에서는 준호와 영호가 다  $\phi$ 의 선행사가 될 수 있으며 (32b)에서는 준호만이, (32c)에서는 영호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담화의 상황에 따라서는 (32a)에서 선행사 준호나 영호 외에도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영형태화된  $\phi$ 은 서술동사가 지닌 어휘특성에 따라 주어·목적어 또는 임의의 이접된 개체와 조응함을 (33)을 통해 알 수 있다.

- (33) a. 나는 그에게  $\phi$  조금 전에 왔다고 말했다.  
 b. 나는 그에게  $\phi$  조금 후에 가겠다고 말했다.  
 c. 나는 그에게  $\phi$  조금 후에 가느냐고 물었다.  
 d. 나는 그에게  $\phi$  금조 후에 가라고 말했다.

- e. 나는 그에게  $\phi$  조금 후에 가자고 요청했다.
- f. 나는 그에게  $\phi$  금초 후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33a)에서  $\phi$ 의 선행사는 나 외에 누구든지 가능하며 (33b)에서  $\phi$ 의 선행사는 나이며 (33c)는 그 외에 누구든지 될 수 있다. (33d)는 그, (33e)는 나와 그, (33f)는 나가 각각  $\phi$ 의 선행사가 됨을 서술동사의 특성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포문의 서술어미의 형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명사의 영형태화를 앞서의 우위성 제약이나 단순한 통사상의 제약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영형태화가 문장구조상, 담화구조상, 그리고 발화상황상으로 보아 적절성이 유지될 때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3.1. 지금까지 한국어 대명사의 영형태화에 관하여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대명사는 영어와는 달리 담화의 참여자인 화자나 청자가 화제로 쓰일 경우 영형태화 되는데 평서문인 경우는 주어인 화자의 생략이 일반적이고 의문문과 명령문인 경우는 청자의 생략이 일반적이다.

둘째, 전술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구정보이므로 생략됨이 보통이나 구정보라도 주체를 지적하거나 대조적으로 쓰일 경우나 소유자를 명시해야 할 경우에는 영형태화되지 아니한다.

셋째, 한 문장 안에 동일명사(구)가 둘 있을 때 복합문에서는 대명사화, 재귀대명사화, 영형태화의 세 규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문에서는 재귀대명사화만 가능하다.

네째, 복합문 가운데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은 영형태화가 원칙이고 삽입절을 가진 복합문은 위의 세 규칙이 다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섯째, 삽입절을 가진 복합문도 주문의 동사가 지닌 어휘의 특성에 따라 재귀대명사화 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와 동일명사(구) 삭제규칙을 적용받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동사로 ‘민는다, 생각한다, 안다, 예언한다, 강조한다……’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동사로 ‘원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후회한다, 슬퍼한다……’ 등이 있다.

여섯째, 영형태화에 대한 분석(설명)은 종래의 우위성 제약만으로는 부족하며 담화구조상, 발화상황상으로 보아 적절성제약의 설정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남기섬(1973), 국어완형보문법연구, 계명대 한국학 연구소.
- 박영순(1987), 한국어통사론, 집문당.
- 성광수(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제고” 한글 172, 한글학회.
- \_\_\_\_\_(1984), “통칭대명사의 결속관계”, 목천 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양동휘(1980), “기능적 대용화론 서설”, 한글 170, 한글학회.
- \_\_\_\_\_(1981), “무형 대용화론 서설”, 언어, 제 6권 2호.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 장석진(1985), 화용론연구, 탐출판사.
- \_\_\_\_\_(1986), “조응의 담화기능”, 한글 194, 한글학회.
- 홍순성(1986), 국어대명사의 조응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 대학원
- Grinder-Postal(1971), “Missing Antecedents.” L. I. 2.
- Hankamer-Sag(1976), “Deep and Surface Anaphora,” L. I. 7-3.
- Jackendoff(1972), Seme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er. MIT Press. Cambridge, Mass.
- Langacker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In Modern Studies in English. Ed. D. Reibel & S. A. Schane. New Jersey: Presey: Prentice-Hall.
- McCawley(1976),, “Notes on Jackendoff’s Theory of Anaphora,” L. I. 7.
- Wasow(1975), “Anaphoric Pronouns and Bound Variables,” Language 51.